

목어

가을의 마음

어느덧 가을이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햇볕이 어느 날 아침 찬바람에 한물 수그러들었으니, 어느덧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을이 성숙과 수확의 계절인 것은 아마도 가을의 마음이라 할만한 그 눈푸른 하늘을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북녘으로부터 내려오는 단풍은 자연을 화사하게 분장시킨다. 울긋불긋한 등산복과 나뭇대로 한껏 멋을 낸 차림의 사람들이 산사를 찾아왔다가 이내 산을 등지고 바람을 따라 저자로 내려간다.

그들의 등뒤로 노을이 번지는 눈푸른 가을하늘이 유난히 돋보인다. 책을 읽다가 덮어두고 뜰을 거닌다. 걸을 때마다 풀 먹인 먹물묵의 사각대는 소리와 산사의 흙을 밟는 소리에 절로 마음이 빠져든다.

올 가을은 유난히 흐린 날이 많은 것 같다. 수확의 계절에 부족한 햇빛은 농민들의 애를 태운다. 이따금 불어닥치는 태풍은 두렵기까지 하다. 굶은 날씨가 계속되면 자연히 날이 개길 바라게된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굶은 삶을 너무 당연시하는 듯하다. 좀처럼 눈푸르고 성숙한 가을의 마음을 닦으려 하지 않는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만큼 들면 가을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선사들은 그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다. 높은 지위나 재물, 고상한 말씀씨 따위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나눔 화상의 시 한 구절이다.

백년도 잠깐일터니 세월을 등한히 마소 노력수행하면 성불도 힘겨니와 이 생을 잘못 살면 업보 벗기 더 어렵네 두상한 죽을 그 누가 대신하라 빛은 원래 재가 갖는 법이거늘

(百年只是暫是間 莫把光陰當等閒 努力修行成佛易 今生差過出頭難 無常忽到教誰替 有債元來用自還)

올 가을도 예년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다. 눈푸른 가을담기를 잠시나마 연습할 겨를도 없이 또 그렇게 훌쩍 스쳐 지나갈 지 코른다.

올 가을에는 가을마음을 나약처럼 쌓아갈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아야 하리라.

도수(정업도량·본지 본설위원)

“공원 사유지 국가서 매입”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 발족

국가공원 구역의 사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환경단체는 9월 2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발족식에서 발표한 발족문을 통해 “정부는 국립공원 구역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신탁·토지교환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연공원의 한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자연공원법 개정시 매수청구권·협의매수 조항 등을 명시해 사유지 매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시민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경재 서울시립대학교수(조경학과)를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또 오구균 호남대 교수,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6명을 정책소위원으로 위촉하고 10월중 공원일몰제·문화재관리법 합동정수제도에 관한 정책워크숍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소유자 재산권 행사 자연환경 훼손 원인

국립공원 가운데 해상면적을 제외한 육상면적(3824km²) 가운데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44.7%(사할 소유지는 8.3% 포함)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공원구역 내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것일 만큼 국민 불편이 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의 사유지 가운데 자연보호상 중요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발족식에서 공동대표 원택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wjung@buddhapia.com)

“통일토론회 합의 등 남북교류 한몫”

북한 다녀온 성초 통리원장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북한을 공식방문한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대장은 이번 방북이 지난해 9월 가졌던 1차 방북성과의 연장으로서 남북교류의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상호 의지를 담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다음은 성초 통리원장과의 1문 1답 내용.

- 지난 1차 방북때는 북한측에서 합의서 채택을 크게 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합의서 교환의 의의를 말해주십시오.

▲이번 합의서에는 남북불교도가 같이 참여하는 통일토론회라든가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의 서울방문, 금강산 장안사 복원 등이 들어있어 남북 불교의 폭넓은 교류와 통일분위기 조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사항들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정책에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사회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방북때와 비교해 북한의 변화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를 대하는 평양시민들도 손을 흔드는 등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마치 고향을 가는 듯 했고 안내를 맡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더욱 정성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12월 열리는 통일토론회의 주제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로 정한 만큼 그 속에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는 성초통리원장(왼쪽)과 박태하 위원장.

서는 6·15선언 실천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을 계기로 더욱 우리 종단이 남북불교교류에 가교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보현사에서 합동법회를 했을 때 우리쪽에서 본존을 만들어갔는데 모시고 법회를 보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으며 올 때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정책의 변화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조선불교도연맹에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연대별로 북한불교계의 계보를 최근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박태하위원장의 서울 초청은 언제 이루어지는지요.

▲2002년이 우리 종단 종조이신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입니다. 이때를 전후해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북한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현대불교 새 기획들

생활 속의 불교 6면

‘생활 속의 불법 구원’은 현대불교가 추구하는 제1의 제작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 난에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 제시와 함께, 참된 불자로 산다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독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찾아갑니다.

주제가 있는 법문 6면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주제로 한 법문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면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놓이기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행 현장 6면

보살행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교계의 신행단체나 복지단체 뿐 아니라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개인의 삶을 통해 불자로서의 긍지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기획은 단순히 미담을 발굴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바람직한 신행 모델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버려야 할 교계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기능도 겸합니다.

참 불자의 길 7면

‘공부하는 불자상’ 정립을 위해 새로이 마련한 면입니다. 기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기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된 길을 열어주는 목소리는 미약한 현실을 직시할 때, 뒤늦었다는 자탄마저 들립니다. 앞으로 이 면에서는 참선, 영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 방편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불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들, 이를테면 안거나 만행 혹은 출가 등의 의미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8면

가치 판단이나 선택의 기준이 모호한 사회적 문제, 혹은 병리 현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면의 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읽는 재미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필진으로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현명한 조려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칼럼 '사부대중' 9면

누구나 알 듯이 불교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이’로 이루어진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는 말 그대로 출 재가의 4부중이 번갈아 가며, 산문(山門) 안에서 본 세간과 세간에서 본 산문의 모습을 담백한 필치로 담아내며 공동체로서의 불교 교단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그려보일 것입니다.

불교와 과학 10면

종교 없는 과학은 위험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공허하다는 말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교는 이미 한계에 이른 과학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폐해를 치유하는 대안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철학을 전공한 최종대 교수(상지대)는 과학과 불교가 만나 이를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지구촌 불교 10면

해외 불자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불교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다양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승오 스님의 경전 읽기 10면

해인사 승가대 교수인 승오 스님이 독자 여러분을 경전의 세계로 이끕니다. 압도적 분량의 경전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든 독자들에게는 특별히 반가운 이 면은, 불자들이 편안히 읽으면서 경전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입니다.

사찰 선식 기획 11면

사찰의 선식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약식 연구가 정세체 씨와 함께 떠나는 선식기행입니다. 불가의 음식철학과 비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야초의 효능과 활용 등을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달마 이야기 17면

원로 언론인 이규행 씨(전 중앙일보 고문)가 1500여년 전의 달마 스님을 오늘의 언어로 살려냅니다. 소설 형식을 빌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은, 달마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본질을 다가가 수 있을 것이며 ‘달마선법’이라는 단순 명쾌한 수행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화 '선재네 집' 17면

만화가 배우근 씨의 편안한 그림과 우리네 가정을 베다막은 선재네 집 구성원들의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웃음과 감동 그리고 한번쯤 되새겨보아야 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우근 씨는 1985년에 소년경향으로 데뷔한 이래 한겨레신문 만화 초대석에 작품을 게재하는 등 여러 매체에 만평과 4단 만화를 연재중입니다.

건강 이야기 18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상식들을 부담없는 이야기 형식으로 버무려 독자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우리 몸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논설고문 : 고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함
 인쇄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동국제일가람 직지사 30년

重創 佛事 회향 5주년 기념 대법회

모시는 말씀

행사안내

直指寺는 지난 40년 동안 옛 모습을 복원하여 禪學者의 수행과 傳法教育의 으뜸도량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唱導 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30년 중창불사 회향 5주년 기념의 자리에 참석하시어 큰 善緣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0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직지사 만덕전

東國第一伽藍 黃岳山 直指寺 會主 吳緣園 住持 柳法性

- 가사들사 한가족 한 벌 동참금 300,000원
- 육법 공양
- 만동 공양 동참금 - 1인 1등 : 1만원
- 천불전, 천불연등 공양 동참금 - 1인 1등 : 3만원
- 고승진영 특별전시회 기간 - 2000. 10. 1 - 11.20
- 신청 및 문의처
- 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종무소 ☎ 054) 436-6013 · 436-6174 · 2681
- 지역 : 서울 연화사 ☎ 02) 962-6186
- 대구 포교원 ☎ 053) 588-3599
- 부산연화승복점 ☎ 051) 558-0408
- 온라인 우체국 702829-01-000143 (예금주 : 직지사)